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소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주일 예배 봉사위원

	10. 23	10. 30	11. 06
대 표 기 도	김영희 권사	이상호 목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김영희 권사	이상호 목사	정용현 집사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0월 축복인사 - 감사하는 성도님은 아름다우세요(성도 간에)
 감사하는 자가 되자(자신에게)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중보기도 - 교회와 나라(한국, 독일) 우크라이나를 위해 매일 기도 합니다.
3. 청년 소 모임 -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심 일 조	
선교헌금	
합계(Euro)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336장	다같이
기 도 Gebet	-----	김효종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창13 : 4 - 7 (구p15) (1.Mose 13:4-7)	김효종 집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가족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고백 그 이후의 삶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영희 권사

†기도제목

1.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쁨 부어 주소서
3. 전-도, 구제, 봉사, 영성훈련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되도록
4.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주님이 주실 결말이 있다

“인생이란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하라” 기업가인 Bill Gates가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했던 연설의 일부입니다. 야속한 말이지만 그는 냉혹한 현실을 말했습니다. 영화 속 악당은 총에 맞거나 그 악행이 낱알이 드러나게 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부조리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조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부조리를 세상에 남겨두겠냐는 논리입니다.

철학에서는 부조리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절망적인 한계 상황”으로 설명합니다. 프랑스 문학가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Albert Camus(카뮈)는 ‘인간은 부조리와 함께 살아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삶의 부조리를 철저하게 느꼈던 인물이 옴입니다. 옴은 당한 만큼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의 친구들은 죄를 지어 벌을 받은 것이니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옴은 영원히 고통 받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갖 부조리 가운데서 인내한 옴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는 무작정 막연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 끝에 주님이 주시는 선한 결말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2 / 한재욱 목사
(강남비전교회 담임)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했을 때 순종의 방법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2.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에 대처하는 자신만의 비결은?